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Heritage  
Australia

100 유리원판 필름으로 본  
년전 세계문화기행XXVI

단 한 줄로 백 마디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다. 100년 전 당시 여행자와 선교사들이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을 미주할 때면 사진 속에 기록된 사람과 풍경, 유적들이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달은 가장 작은 대륙이며, 동시에 가장 큰 삼나라인 호주로 행복한 시간 여행을 떠난다. 호주는 겨우 2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가진 신생국가에 속하지만 일찍이 '지상의 낙원', '목축업의 나라' 로 불리며 급성장한 국가다. '백호주의 나라' 라는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호주는 평등한 사회이자 노동자의 천국이다. 또한 아생동물이 뛰놀고, 아름다운 해변과 사막 등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는 곳이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 이민자의 나라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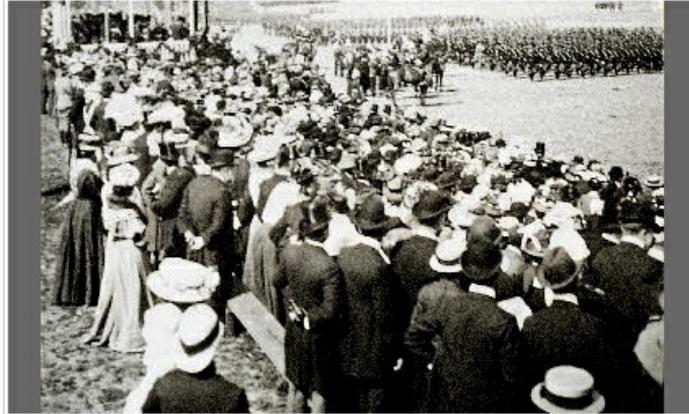
풍요와 안정을 의미하는 '지상의 낙원', '목축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는 호주는 일찍부터 선망의 땅이었다. 그러나 '백호주의 나라'로서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유색인종인에게 적대감이 강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이미지는 피상적인 관찰과 편견, 몰이해 등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겨우 2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가진 호주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망설임이 없지는 않다. 세 가지 신화를 중심으로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첫째 신화는 호주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평등사상 (Egalitarianism)은 호주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영국이 미국과의 식민지 전쟁에서 패배한 뒤 당시만 해도 신대륙이었던 호주가 등장했다.

호주 최초의 식민지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로 이곳의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천태만상의 죄목으로 유배되어 온 죄수들이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해서, 뉴사우스웨일스는 죄수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 목적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 유배되어 온 이 죄수들이 호주 건국의 기초를 닦았고, 이들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경제 발전도 가능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호주가 본래 '죄수의 유배지'였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죄수라 하면 형법상의 범법자들을 연상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들의 범법 행위가 좀도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이 당시 대부분의 범법 행위는 민생고와 빈곤에 의한 것이었다. 1800년대 초기의 영국 노동자들, 특히 농업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항상 굶주렸다. 이들은 굶주림 때문에 주인의 농장에서 호박이나 감자, 토끼를 훔쳤다고 체포되어 호주로 추방당했다. 이때가 아일랜드의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던 시기였다.

죄수들 가운데에는 농장 주변의 좀도둑 외에도 땀나무를 조금 베었다고 기물파괴범으로 체포되어 유배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죄수의 유배는 성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너무 어려서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어린이까지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무더기로 끌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이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1797년 영국 노어(Nore) 항구에서 발생한 선박 폭동 사건 당시 폭도들에게 친절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해서 유배된 윌리엄 레드fern(William Redfern)은 19세의 젊은 외과의사로, 훗날 시드니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의사가 되었다. 소위 죄수로 또는 자유 정착민으로 호주에 정착한 초기 이민자들의 마음 속에는 한가지 염원이 있었다. 즉, 신천지에서는 영국과 같은 계급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01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호주연방으로 독립할 때, 호주는 이미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불릴 만큼 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의 토대를 닦고 있었다.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땅을 개간해야 하는 500만 명 정도의 초기 이민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굳은 동지애로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죄수로 몰아 유배지로 보냈던 영국과 같은 계급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식이 평등사상을 추구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글로벌화, 시장 경제 등의 세찬 바람이 사회구조적으로 호주를 상당히 불평등한 나라로 내몰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신화도 깨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호주인들에게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나라라는 확신이 있고, 그들의 타인종에 대한 관용, 비교적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장치에서 이 신화의 맥은 아직도 흐르고 있다. 또 하나의 신화는 척박한 오지(奧地)의 나라라는 것이다. 지금도 여행자들이 호주의 사막에서 길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나라 경상도 크기의 목축 농장이 있는 등 아직도 광활한 대륙과 오지가 산재해 있다. 오지라고 해서 불편하고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5~7월의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나면 사막에 꽃이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호주는 목축업의 나라이면서도 전 인구의 8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숲속의 나라', '오지의 나라'라는 신화는 이미 오래 전에 깨졌다. 그러나 호주의 광활한 대륙은 아직도 신비의 마력을 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한 뒤 자동차로 호주 대륙을 한 바퀴 도는 것을 희망한다.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차례 호주대륙을 일주한 은퇴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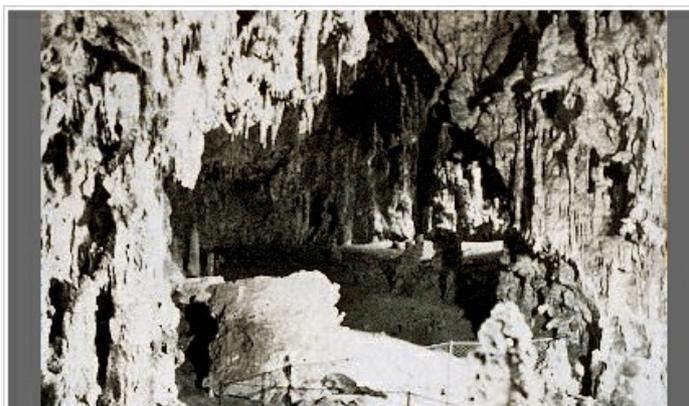
또 하나의 신화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초기 호주의 이민자들은 신천지를 개척해야 하는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아일랜드 계통의 가톨릭 노동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호주의 노동 운동은 저항적이며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다. 1970년대 전(全)호주 건설 노조(BLF: Builders Labourers Federation)는 4년 동안의 환경보호(Green Ban) 투쟁을 전개하여 시드니의 환경이 경제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았고,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폐업을 막았다. 또한 멜버른 시에서는 인근에 건설하던 화력발전소의 규모를 축소하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한편으로는 월남 파병 강제 징집제도 폐지와 파병 거부를 위해 8년이나 투쟁을 했다.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집계에 의하면 1995년 600만 명의 노동자 중에 약 35%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198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50%, 198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42%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신 노동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7)은 노동운동의 약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자의 나라’라는 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인데, 이것도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볼 수 있다.



호주 자치를 선언한 1901년 호주 연방 선포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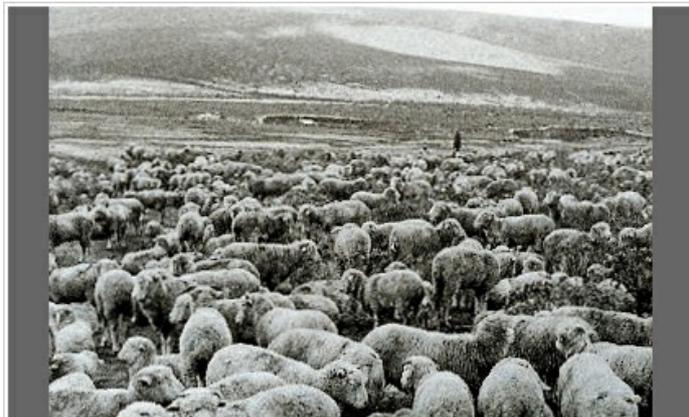
부에노스아이레스, 나폴리 등과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의 옛 모습. 유형의 역사 위에 생겨난 시드니는 1820~30년대에 발전한 목양업과 1850년대의 골드러시로 번영했다. 촬영 당시에는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브리지도 없었다.



시드니 서쪽 블루마운틴 부근의 제놀란 동굴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석회암 동굴이다. 동굴의 생성 연대는 3억4000만 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반구의 런던'이라는 애칭을 지닌 빅토리아의 주도 멜버른. 현대적인 고층빌딩이 즐비한 요즘도 유유히 흐르는 아라 강과 고종스런 건물들이 도시의 무게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목축업의 나라 호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양떼. 호주는 세계 제일의 양사육 국가이며 양모 및 양고기 수출국이다.



태즈메이니아의 주도 호바트 중심가인 엘리자베스 거리.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인 호바트는 유럽 대륙에서 유배당한 죄수들 중에서도 사형수나 무기수들이 수감되었던 유형지였다.

### Australia Information

#### >>기본 정보

국명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수도 캔버라(Canberra, 31만 명)

면적 768만6850km<sup>2</sup>(한반도의 약 35배)

인구 약 2062만 명(2006.9)

민족 유럽인(92%), 아시아인(7%), 원주민(1%)

언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다. 봄은 9~11월, 여름은 12~2월, 가을은 3~5월, 겨울은 6~8월이다. 일반적으로 북부 연안은 열대기후, 중남부 연안은 온대~냉온대 기후로 사계절이 있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크다.

### >>비자

호주여행을 위해서는 방문비자(ETA)를 받아야 한다. 여권에 붙어오는 비자가 아니라 종이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호주행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가는 방법

**시드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그리고 콰타스항공(QF)이 인천과 시드니 간을 아시아나항공과의 코드셰어로 운항하고 있다. 소요시간은 직항인 경우 9시간 45분이 소요되고, 타 지역 경유 시에는 약 12시간이 걸린다.

**멜버른**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인천~홍콩~멜버른 루트를 매일 운항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 인천~시드니 직항과 시드니~멜버른 국내선을 타게 된다.

**호바트** 한국에서 바로 가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시드니 또는 멜버른을 거쳐서 호주 국내선을 이용하여 들어가야 한다.

### >>시차

광활한 대륙이다 보니 지역에 따라 시차가 난다. 시드니가 속한 동부는 한국보다 1시간, 중부는 30분이 빠르다. 반면 서부는 한국보다 1시간 늦다.

### >>검역

호주의 검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하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동식물, 음식물 등은 여행자 스스로 검역 대상 품목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짐을 직접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역신고서에 표기하도록 한다.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나 식품이 발견될 경우,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 >>환전

출국하기 전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현지에서 환전하면 심한 경우 한국에서보다 30% 이상 손해를 본다. 현금이 없다면 차라리 신용카드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 >>전압

220~240V, 50Hz이다. 플러그가 3핀 방식이므로 한국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다.

### >>주의 사항

- 현금 1만 호주달러 이상을 가지고 입국 또는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자외선이 강렬하기 때문에 여행 시에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차량통행이 한국과 반대(좌측 통행)이므로 길을 건널 시에는 차량통행에 주의한다.
- 기초적인 약 외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한다.
- 호주의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최근 들어 절도 및 폭행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뒷골목이나 환락가 주변을 피하도록 한다. 또한 많은 현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top](#)